美, 한국산 HBM·반도체장비 對中 수출통제…일본산 예외

美 기술 사용 외국기업 강제 적용…자발적 동참 국가 허가 면제

삼성 HBM 수출 영향 가능성…SK, 전량 美 수출 당장 타격 없어

美, 中 군 현대화 관련 140개 기업 수출불가…韓 2개 기업 포함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2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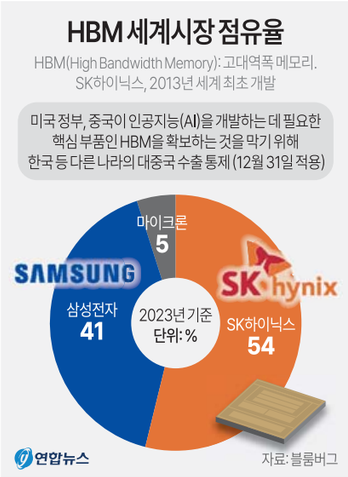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특허 체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온 미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이번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평방밀리미터당 초당 2기가바이트(GB)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중국에 HBM 일부를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이번 통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미국 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상무부는 HBM을 미국이나 동맹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중국 자회사에 수출할 경우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통제 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날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SME)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통제도 발표했다.

상무부는 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만드는 일부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중국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무부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수출통제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기업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상무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주요 반도체 장비 수출국인 일본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총 33개 국가가 해당되는데 한국은 명단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對)중국 수출통제 동참을 검토하면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자국 기업의 반도체 장비 수출 일부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따르기로 미국 정부와 몇 달 전에 합의했다.

상무부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연관된 기업 140개의 명단을 발표하고서 이들 기업에는 첨단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출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국에 있지만 일부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ACM 리서치 코리아'와 '엠피리언 코리아' 2개 기업이 지정됐다. /연합뉴스

60일 휴전 '아슬아슬'…이 공습에 사망자 속출

상대방 '합의 위반' 주장하며 휴전 발효 후 첫 공격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지난 2일(현지시간) 상대방의 휴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공격을 주고받았다.

특히 레바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서 양측의 휴전 합의가 발효 엿새 만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합의를 중재한 미국은 휴전 중 일부 위반 행위는 있을 수 있다며 상황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레바논-시리아 국경지대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셰바팜스를 공격했다.

이스라엘군도 헤즈볼라가 북부 접경 마운트 도브 지역에 박격포 두 발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마운트 도브는 셰바팜스의 이스라엘식 명칭이다. 다만 박격포 두 발 모두 공터에 떨어져 사상자는 없었다고 군 당국은 덧붙였다.

헤즈볼라의 이날 이스라엘 공격은 지난 달 27일 양측이 60일간의 임시 휴전에 돌입한 이후 처음 발생한 것이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휴전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방어 및 경고성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의 진지를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헤즈볼라를 대리해 이번 휴전 협상에 참여한 나비 베리 레바논 국회의장은 휴전 발효 후 이스라엘이 54차례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헤즈볼라의 공격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를 공습하며 거세게 대응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레바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 위반에 따라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에서 여러 차례 공습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동부 베카 계곡의 헤즈볼라 미사일 제조 시설과 헤르밀 지역의 여러 곳에서 무기 운반에 사용하던 군용 차량 여러 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헤즈볼라가 리타니강 이남에서 철수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이곳으로 무기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겨냥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헤즈볼라에 대한 강력한 타격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양측의 긴장고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일단 신중한 기조를 이어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휴전은 성공적이었고, 전투는 상당 부분 중단됐다며 미국은 휴전이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전 중에는 당연히 위반이 발생한다"며 "우리는 보고된 위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프랑스, 이스라엘, 레바논과의 창구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트럼프, 7일 노트르담 재개관식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참석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웅장하고 역사적인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토요일(7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영광"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

멕시코에서 열린 과달라하라 제38회 국제도서전(FIL 2024)에서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부스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문화원 측은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 문학에 대한 방문객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제공=연합뉴스

멕시코 국제도서전에 '한강 바람'

한국문화원, 과달라하라 도서전서 한국 문학 홍보

스페인어권 최대 규모 도서전으로 꼽히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도서전에서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은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진행되는 제38회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FIL 2024)에 부스를 설치하고 한국 문학과 전통 공예 홍보를 하고 있다. 주빈국은 스페인으로, 'Camino de ida y vuelta(오고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한강 작가 역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작가의 멕시코 내 스페인어 판권을 보유한 멕시코 주요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 측은 도서전 첫날에만 '채식주의자'(1위), '희랍어 시간'(2위), '소년이 온다'(4위), '작별하지 않는다'(6위·이상 출판사 부스 내 판매량 순) 등 800권 넘게 팔렸다고 한국문화원 측에 전했다.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은 한강 작가 작품에 더해 멕시코에 비교적 잘 알려진 김영하 등 작가의 번역본 도서를 별도 섹션으로 소개하고 있다.

전우표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장은 "한국 문학 작품이 중남미에 더 널리 알려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